"윤홍근 BBQ 회장 '갑질 논란'은 허위"

서울중앙지법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이 일부 가맹점에 대해 폭언·욕설을 했다는 의혹이 '허위'로 판명됐다.

제너시스BBQ 측은 "서울중앙지방검찰 수사 결과 윤홍근 회장의 폭언·욕설을 목격했다는 매장 방문 손님은 실제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중량 미달의 제품을 빈번히 제공했다는 가맹점 사장의 인터뷰 내용도 허위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13일 밝혔다.

제너시스BBQ 관계자는 "사건 당시 사실무근이라고 많은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갑질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사건을 최초 보도한 매체의 반론보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갑질 이미지에서 벗어나 명예가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보라 기자 bora11@meconomynews.com

항공업계 휘젓는 강성부 펀드 'KCGI' 1년

한진칼 매입… 지분 15.98%, 실질 2대주주
델타 등장에 멈칫… 아시아나 눈 돌렸다가 탈락
내년 주총 앞두고 다시 한진그룹 지배구조 딴지

KCGI 강성부 대표와 한진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여객기. 사진=각 사 제공

이른바 강성부 펀드로 알려진 KCGI가 한진칼 지분을 처음 매입하며 항공산업을 휘젓기 시작한지 벌써 1년이 됐다. 그동안 뚜렷한 성과 없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인수라는 투자자 현혹에만 집중한 것. 이로 인해 항공산업은 적잖은 타격을 입었고, 시장은 혼탁해지는 양상이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KCGI가 한진칼 지분 9.0%를 매입했다고 공시한지 1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사모펀드의 한계를 드러내며 항공산업을 위협하고 있다.

KCGI는 투자목적 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지난 2018년 11월 15일 한진칼 주식 532만2666주(9.0%)를 매입, 처음으로 한진그룹 경영권 위협의 포문을 열었다. 이후 수 차례에 걸쳐 한진칼 지분을 추가 매입해 현재는 945만7252주(15.98%)를 보유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단일주주로서 최대주주가 됐다. 故 조양호 회장의 지분이 가족들에게 법적 비율대로 상속되면서 어부지리로 수혜를 입은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6.52%)을 비롯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6.49%), 조현민 한진칼 전무(6.47%),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5.31%)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28.94%에 이른다. 경영권은 여전히 조원태 회장 일가에 있다.

KCGI는 1년 동안 한진칼에 지배구조 개선과 높은 부채 비율 등을 지적해왔다. 사외이사를 추천했고 적자 사업 정리 등을 요구해왔다. 얼핏보면 소액주주들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나타난 '정의의 기사' 같지만, 물컵 사건 등으로 갑질 오명을 쓴 한진그룹의 빈틈을 노려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심산이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진칼 주가가 오를 경우 차익 실현을 하려는 의도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KCGI 입장에서는 복병이 나타났다. 델타항공이 한진그룹의 백기사 역할을 맡게 되면서 경영권 확보는 사실상 물건너 갔다. 올해 6월 델타항공이 한진칼 지분 4.3%를 매입했고, 지분율을 1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후 실제로 8월과 9월에 지분을 추가 매입해 591만7047주(10.0%)를 보유하게 됐다.

40%에 육박하는 오너 일가 지분을 압도하기 위해서는 지금만큼의 추가 지분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더 이상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요인이 없는 상황이다. 결국 잠잠하던 KCGI는 지난 7월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공고를 앞두고 인수전 참여 의사를 나타냈다. 대한항공 경영권 확보가 힘들어지니까 이번에는 아시아나항공에 눈독을 들인 것. 아시아나항공 인수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며 투자자들을 현혹시킨 셈이다.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이 역시 무산됐다. 재무적투자자(FI)에게는 매각하지 않겠다는 금호산업과 채권단의 기본적인 원칙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KCGI는 전략적투자자(SI) 없이 뱅커스트릿 PE와 컨소시엄을 이뤄 본입찰에 참여했고, 자격 미달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제외됐다.

처음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참여하는 목적과 진정성에 의구심이 제기됐던 KCGI는 망신만 당한 채 고개를 떨궜다.

그러더니 이제 다시 대한항공 흔들기에 나섰다.

KCGI는 지난 15일 한진칼이 추진하는 지배구조 개선에 제동을 걸며, 거버넌스위원회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의심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외에도 대한항공의 높은 부채를 지적하며 주주로서 경영간섭을 하고 있다. 내년 주총을 앞두고 최대한 목소리를 내며 입지를 넓히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KCGI의 무차별적인 항공산업 휘젓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걱정"고 밝혔다.

이대준 기자 ppoki99@meconomynews.com

Cannes Lions 수상작 지면 전시

The Wonderful Wizard of Oz
by L. Frank Baum

CLASSICS MADE MODERN

CHICAGO PUBLIC LIBRARY

Same stories, now in digital formats.
Access all our collections on the Chicago Public Library app.

Platforms

Industry Craft Bronze Lion Campaign
Title: WONDERFUL WIZARD OF OZ 오즈의 마법사
Client: CHICAGO PUBLIC LIBRARY 시카고 공공 도서관
Agency: FCB CHICAGO Product: LIBRARY 도서관
Copy: The Wonderful Wizard of Oz by L.Frank Baum L.프랭크 바움의 오즈의 마법사

Classics made Modern 고전이 현대를 만들다
Same stories, now in digital formats. Access all our collections on the Chicago Public Library app.
같은 이야기, 이제는 디지털 형식으로 보세요. 시카고 공공 도서관 App에서 우리의 모든 콜렉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전 "전기료 더 걷을 수밖에 없는 현실"

작년 1조7천억원 투입
"이젠 정부가 부담해야"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 움직임이 더욱 분명해 지고 있다.

지난해 취임부터 줄곧 요금체계 정상화를 외친 김종갑 사장에 이어 한전 실무자도 "국민들에게 조금 더 걷을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냉철해 질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공식석상에서 내놨다.

임낙송 한전 영업계획처장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정책 우리가 가야할 길' 토론회에 참석해 "그동안 신사업 육성이란 정책적 방향을 위해 한전은 많은 재원을 투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정책에 따른 기업 특례할인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할인 등에 투입되는 재원을 정부가 부담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전은 지난해 1조1745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특례할인 지원금 1조1434억원과 복지할인 지원에 5540억원을 투입한 결과다. 2017년 특례할인과 복지할인 지원금은 각각 5810억원과 지난해 4831억원으로 1년만에 한전이 부담해야 할 지원금이 대폭 늘었다.

올해 상반기 순손실도 1조1733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지난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면서 적자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적자가 점점 누적되는 셈이다.

생산원가를 반영한 실질적인 전기요금 현실화 방안도 거론됐다.

임 처장은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석유, 지열발전, 수력 등 자원이 풍부한 멕시코나 아이슬란드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지속가능한 전기공급을 위해서라도 원가주의 기반으로 비용 발생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주택용 전기요금은 지난해말 기준 1kWh 당 121.9원이다. 이는 미국(145.7원), 독일(388.4원)에 비해 상당히 싼 편이다.

또 한전이 1984년 1kWh를 67원에 공급하던 것에서 35년간 1.8배 올린 것은 다른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 폭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다른 전문가들도 전기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에 공감했다.

노동석 서울대 전력연구소 박사는 "발전 비용이 비싼 것(신재생·LNG)이

사진=픽사베이

싼 것(원자력·석탄)을 대체하니 전기요금은 오를 수 밖에 없다"며 "2040년쯤이면 현재보다 50% 가량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삼화 의원도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수요전망부터 전기요금,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까지 8차 계획을 전면 손볼 필요가 있다"며 "전기요금은 현행 요금 체계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합리적으로 체계 개편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 외에도 전봉걸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장, 김정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관, 박종배 건국대 교수,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조성경 명지대 교수, 장현국 삼정KPMG 상무 등이 참석했다.

안종현 기자 ajh@meconomynews.com

상한제 시행 8區 집값, 서울 평균보다 더 올랐다

0.27% 상승… 서울 0.22%

분양가상한제 지정 후 집값 상승은 물론 상승폭까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집에 대한 희소성을 자극해 집값만 높여놨다는 지적이 제기될 전망이다.

본지가 정부와 민간의 집값 통계 기구인 한국감정원과 KB부동산의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8구의 집값은 각각 0.111%, 0.16% 상승을 기록했다. 8구의 평균 집값이 1억원이라면 분양가상한제 직후 1억11만원(한국감정원 기준), 1억16만원(KB부동산 기준)으로 올랐다는 이야기다. 국토교통부는 11월 6일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영등포구,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을 분양가상한제 서울 도입 지역으로 발표한 바 있다.

0.111%, 0.16%를 기록한 8구의 집값은 서울 전체 평균 보다 많이 오른 상태다. 같은 기간 서울의 평균 집값 상승률은 한국감정원이 '0.09%', KB부동산이 '0.13%'로 나타났다.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한 지역에서 집값이 더 올랐고, 규제를 해도 집값을 잡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더 큰 문제는 '집값 상승률'이다. 본지 분석 결과 분양가상한제 지정 후 집값 상승률은 더 벌어졌다. 한국감정원·KB부동산 발표 자료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도입 직전 8구의 집값은 0.108%(한국감정원 기준), 0.157%(KB부동산 기준) 올랐지만 지금은 각각 0.111%, 0.16%를 기록하면서 '0.003%'씩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규제보다 매수심리가 더 강한 상태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부동산거래 합동조사, 분양가상한제 확대 예고 등 정부 규제로 일부 지역의 상승세는 주춤했지만 매물이 부족한 신축아파트와 학군 및 입지 양호한 선호단지 등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KB부동산은 "송파구 등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발표 이후 매도 호가는 더욱 오르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3월 개학 전에 이사하려는 실수요 문의도 늘어나고 있고, 대단지가 가격이 너무 올라서 상대적으로 거래가 적었던 소규모 단지로 수요가 옮겨가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만랩 오대열 리서치팀장은 "분양가상한제 지정으로 공급이 위축되고 결국 집값이 더 오를수 밖에 없는 모양새"라며 "또한 규제를 피해 비규제 지역으로 눈을 돌리는 풍선효과까지 맞물려 당분간 집값 상승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규호 기자